



권 월 간 발 행  
 2023.2 / 3  
 vol.294

# 사람 세상

www.hanbeot.org

# “하나의 빛, 모두의 빛”



## 한 빛 이 하 는 일

**뇌병변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원 10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주말 혹은 단기위탁 가능)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뇌병변 · 지체 주간보호, 정원 10명)

**미안마 한벗지부 운영**  
(미안마, 필리핀 등 빈곤국장애인 휠체어 및 중고 유모차 장애인들에게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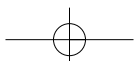
**미안마방정환기금**  
(어린이잡지를 미안마의 농촌학교와 고아원에 매월 기증)

**한벗투어**  
(장애인 국내 및 해외여행지원/리프트 버스 및 승합차 운행)



**한벗보조공학센터**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보조기구 지원)

**고양시지속종합복지관 운영**  
(고양시 지속동의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



# 한빛은 왜 미얀마로 가는가?

**불행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얀마에서 무엇을 하는가?**  
**희망을 본다, 어린이들에게서.**

## 3.1 독립운동의 좌절

1919년 3월~5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맨손의 조선인들이 독립을 외치며 들고 일어났다. 죽기를 마다하고 참가한 조선인 200만명(당시 인구의 1/10), 그리하여 어찌되었는가? 사망 7,500명, 부상 16,000명, 체포 47,000명. 조선의 독립은 좌절되었다. 지금의 미얀마와 꼭 닮았다.

## 어린이들이 조선의 희망이다!

온 나라가 좌절감에 빠져 엎드려 있던 1923년, 청년 방정환이 외쳤다. ‘조선에 희망이 있다, 아이들이 조선의 희망이다.’ 그는 어린이잡지를 펴내고, 우리 동요를 만들고, 아이들의 그림을 모으고 놀이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잘 놀게 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다.’ 그렇다, 총칼의 폭력에 굴복한 어른들의 마지막 희망은 아이들뿐이다.

**한빛은 미얀마의 어린이들을 보러 간다. 미얀마의 희망을!**





이혜봉 선생의 하모니카 연주.

지난 1월말 한빛 봉사단 4명이 양곤의 사원학교 2곳을 오가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 하모니카연주회와 지도

이혜봉 선생이 사원학교 2곳에서 연주회를 가진 후 하모니카 35개를 선물하며 연주지도를 했습니다. 하모니카를 처음 본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했습니다. 선생은 오는 6월 하모니카합주단을 이끌고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 그네 달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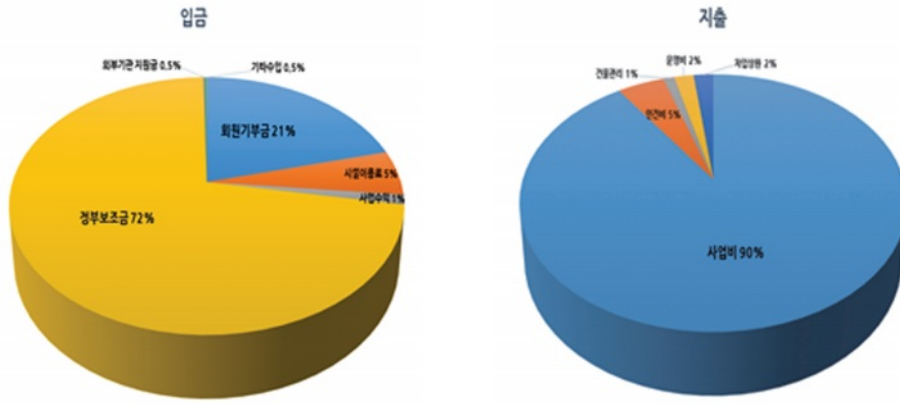
미국 교민 스티라 여사의 기부로 사원학교 한 곳에 그네를 달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소식을 들은 스티라 여사가 고맙게도 \$500을 더 보내와 6월 방문 때 달아줄 예정입니다(그네 설치비 110만원)

### 그림그리기 대회 열어

크레파스와 색연필을 선물하며 그림그리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원학교 2곳 어린이 260명이 참가했는데, 작품을 한국으로 가져와 김의규 화백이 심사를 했습니다. 3월 중 상금을 보내 현지 봉사자가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네 의자가 2개뿐이라 아쉬워(위)  
동승들도 그림그리기에 참여(아래)

## 2022년도 재정결산 내역을 보고합니다



단위 : 천원

입 금		지 출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비 고
회원기부금	409,343	시설운영비	1,652,230	등지, 복지관, 주간보호실
시설이용료	110,107	재단사업비	140,065	미안마, 장애인지원, 기타
사업수익	24,153	인건비	92,383	본부 직원 3명(퇴직금 포함)
정부보조금	1,404,773	건물관리	22,020	
외부기관지원	2,640	운영비	38,320	사무국
기타 수입	3,214	차용금 상환	39,213	원금과 이자
차용금	30,000			
<b>합계</b>	<b>1,984,230</b>	<b>합계</b>	<b>1,984,230</b>	

※ 복지관을 운영(6억4천만원)하게 되어 정부보조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 회원기부금 중에서 재단본부를 위한 기부금이 21년도에 비해 2천만원가량 줄었습니다.

기부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한벗 후원계좌 안내〉 • 한벗재단 국민 763601-04-002564 • 월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 한벗동지 국민 577301-01-127870 • 한벗주간보호센터 국민 763601-04-078400 • 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 고양시지속종합복지관 농협 351-1206-0089-03

## 주간보호실 소식

## 주간보호실의 춘궁

겨울을 벗어나는 이때가 고프고 똥하다.

이용장애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봉사자들이 보이지 않아서다.

## 보고 싶어요, 숙명여대 봉사학생들

승·하차와 화장실 이동 같은 힘든 노역을 담당하던 사회복지요원 2명이 복무를 마치고 돌아간 후 1명만 충원되었다. 또 고맙기 짝이 없는 여러 숙명여대 봉사학생들은 졸업과 취학 또는 휴학으로 아쉬운 작별을 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후에나 학생들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 안마와 노래교실 선생님도

뿐만 아니다. 이용자들의 몸을 풀어 주던 안마 서비스 김남규 선생님은 몸이 안 좋아져 3개월 후에나 계속할지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그리고 어렵게 섭외한 음악치료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기로 날 교통사고를 당한데다 코로나19까지 감염되어 결국 포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 그러면 다시 음악치료 선생님을 구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래저래 우리 주간보호시설은 찬바람 부는 아직 2월이다.



보고 싶어요, 숙명여대생

즐거운 노래 교실, 언제나?

안마 선생님, 다시 와 주세요!

## 보내주신 선물 맛있게 먹었습니다

- 푸드뱅크 : 빵 60개, 로션(1박스) • 기부해주신 분 : 신두철(시설장) : 100,000원
- 자원봉사 고마워요 • 숙명여대생 : 박시연, 구주연



설맞이  
풍성한 선물 나누어

설맞이 선물 마련을 위해 카카오같이가치 모금을 벌여 적지 않은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마을 반찬가게와 연계하여 떡국을 끓여 드실 수 있도록 사골육수와 떡국 떡, 나물과 소불고기를 담은 음식 세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후식으로 드시도록 식해도 곁들였습니다.  
 설에는 역시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지요. 모두들 고마워하며 좋아하셨습니다.

2023년 찾아가는 복지관 ‘축복안녕’ (WITH. 사회복지현장실습생)



지난 2월 1일, 사회복지현장실습생 6명이 기획한 찾아가는 복지관 ‘축복안녕’ 을 가졌습니다. 아직 복지관의 서비스를 잘 모르는 주민들에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활동을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퇴근길의 어르신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지축종합사회복지관 02)381-8938

한빛등지 소식

명규 군, 졸업을 축하해~

주용 씨와 범준 군, 청와대 방문



명규 군이 10년 동안 다닌 은평대영특수학교 전공과를 졸업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대영학교는 지적장애학생이 많아 졸업식장이 어수선 했지만 우리의 명규 군은 졸업식 내내 의젓하고 차분하게 치렀습니다. 식을 마친 후에는 각자의 교실로 가서 선생님의 선물을 받으며 몽클한 작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특수학교의 전공과까지 졸업을 했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겠지요.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주용씨는 청와대가 개방되었다는 소식에 가보고 싶다고 해 다녀왔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대통령 관저와 유명한 정원, 또 역대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은 전시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나온 신문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나라를 잘 운영해주세요.

보내주신 선물, 맛있게 먹었습니다.(12월17일~2월16일)

**이용자 가족 / 후원회원** 광주재능기부센터 장우철: 식초 김명규 어머니(이용자): 나물 다농마트 입구 빵집: 빵, 음료수 당가원(후원자): 짜장면. 김민혁 아버지(이용자): 생활용품 박주용 부모님(이용자): 떡, 만두. 부부커피(후원자): 빵 서민행(후원자): 바자회물품 송실대교수님: 수건 여일구(후원자): 고구마튀김. 오상운 어머니(이용자): 커피 지만용 아버지(이용자): 고기 진 권 부모님(후원자): 고기

**단체** 순복음교회 쌀 10kg, 한바다식품 사과, 롯데카드 식재료, 푸드뱅크 빵, 김치





## 오사카 - 교토 관광 4월 출발 (4박 5일 1인당 120만)

### 4월 출발예정

일본 관광을 신청한 분들은 2월말 현재 5명입니다. 3월 중순까지 더 이상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대로 출발합니다. 3월부터 수많은 관광객이 일본 최고의 벚꽃 도시 교토로 몰립니다. 장애인도 물론입니다. 현재 장애인 버스를 예약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추가신청 받습니다.

### 장애인 관광 천국 일본

관광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전용호텔이 전국에 28개나 있습니다. 또 정부가 개인에게 관광비를 지원하는 제도 덕분에 시즌이 되면 장애인도 거리낌 없이 관광에 나섭니다.



## 나이아가라 폭포관광 10월 출발 5박 6일 1인당 330만원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장관이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떠납니다.

비행기 도착지는 캐나다 토론토, 이곳 교민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캐나다는 장애인버스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어 일본보다 훨씬 쌉니다. 사진에서 보는 버스는 6인승입니다.

지금부터 돈을 모으세요.

결코 후회 없는, 생애 최고의 관광이 될 것입니다.

접수 : 02)393-0661 최우람 국장



## 한빛 장애인 여행 02)702-1515

## 재단소식

## 재단을 이끌어 나갈 한벗운영위원회 출범



이사회는 작년 11월과 올 1월 회원초청모임을 가지고 한벗45주년을 맞아 효창동 재개발 이후에 펼칠 사업을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벗 1세대의 은퇴에 따라 재단을 이끌 운영위원을 모시기로 했는데, 2월 18일 모임에서 자원한 12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45주년기념식 준비, 효창동 재개발에 따른 보상협의, 기부금 모금, 한벗공동체마을 조성 계획 수립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재단 운영위원(12명) - 2월 18일 현재**

강제숙 : 자원봉사자, 1989년 난지도 사랑방교실 자원교사, 이동봉사대 일본건축 지원

배경미 : 청년한벗회원, 정기기부회원, 개인사업

백진양 : 창립회원, 전 이사장, 현 재단본부 자원봉사자

엄해경 : 뇌병변복합장애인부모회 설립자, 현재 주간보호실 이용자 엄마

이민숙 : 자원봉사자, 전 이동봉사대 운영위원

임정숙 : 창립회원, 빈민어린이탁아소 3개 설립, 현재 강화도에서 노인 상담 복지사

임춘규 : 자원봉사자 모임, 한울회 전 회장, 현재 회사 퇴직 후 개인 사업

장혜선·이승주 부부 : 전 한벗주간보호실 직원, 현재 복지재단 산하 정신장애인작업장 실장

조재선 : 전 자원봉사자씨클연합회장, 참우리회장, 공무원 퇴직 후 개인사업

한동훈 : 한경환에서 개명. 전 한벗보조공학센터 실장, 현 한벗투어 직원, 보조기기 개발자

현승혜 : 현혜숙에서 개명, 한벗회원, 현재 정기기부회원, 보험설계사

※ 첫 운영위원 모임(2월 18일)에서 대표직을 사양하던 백진양 선생이 올해 말까지 맡는 조건으로 위원장에 피선되었습니다.

**기부회원 모시기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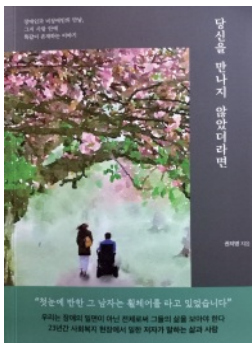
현재 재단의 재정결손이 계속되어 새로 출범한 운영위원회도 기부회원 모시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한국 온 지 15년 만에 처음 관광을!



### 조선족장애인 가족, 동해안 숙박여행

한국에서 일하는 조선족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한벗은 그동안 이분들에게 전동휠체어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과 연예인 황기순 씨의 기부금으로 지난 1월 수 · 전동휠체어와 숙박여행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애인 4명의 가족 11명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정동진 주변을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광은 한국에 와서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권지명 전 재단본부 사무국장이 작년 12월 말에 아주 드문 수기를 펴냈습니다. 권 국장은 한벗에 근무할 때 유전성 근육장애를 가진 정영만 군과 결혼했는데, 결혼 후 겪은 출산과 육아, 남편 돌봄의 우여곡절을 진솔하게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서출판<설렘> 16,000원



### 오미희 씨의 유산?

한벗이 펴낸 ‘공주님의 치마’를 기억하시나요? 그 책에서 공주님이라고 부른 분이 ‘오미희’ 씨입니다. 생전에 한벗에는 두 번밖에 들리지 않았고 주소나 전화번호조차 남기지 않았지요. 그런데 얼마 전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미희 씨가 한벗 앞으로 적금을 들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선 이미 별세했다면 가족만 찾을 수 있다고 해 못 찾았지만, 한벗에 남긴 돈이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 공주님!

재단소식



## 쓰지 않는 휠체어, 기증해주세요.

가난한 나라의 수많은 장애인이 휠체어가 없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휠체어는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선물이 됩니다. 한뼘은 빈곤국 장애인에게 중고휠체어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달려갑니다. 기증문의 02)393-0661



## 봄맞이 피부미용서비스

지난 2월 25일에 이어 3월에도 마지막 토요일인 25일 3시에 갖습니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봄이 오는데 예뻐지세요. 신청 : 02)393-0661



## 서영자 선생님 소천

미얀마방정환기금 회원인 서영자 선생님(97세 / 구상 시인의 처제)이 지난 2월 5일 소천 하셨습니다. 손 모아 명복을 빕니다. 조카인 구자명 선생이 고인의 뜻을 기리며 미얀마 고아원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을 위해 30만원을 기부 해주었습니다.



## 텍사스북여성회에서 \$1,000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0을 기부해주셨습니다. 고국을 위한 기부금, 소중한 정성 잊지 않겠습니다.

## 특별기부금 고맙습니다. 귀한 뜻을 받들겠습니다.

- 장혜실 이사장님, 방정환기금에 30만원 특별기부
- 달라스의 스텔라 님이 지난해에 이어 미얀마고아원 그네 설치비 \$500
- 휠체어날개달기의 김정미 님과 박현성 님, 10만원씩.
- 국기호 감정평가사님 설 에도 탐스런 과일 선물



# 코로나도, 추웠던 겨울도 물러갑니다 이제 꽃처럼 피어나세요!

22년 12월 ~ 23년 1월 입금내역. ( )안은 개월 수

## 〈미국 텍사스 교민 기부금(달러, 칼린)〉

달러(\$2,550)		칼린(\$830)			
1월	2월	1월		2월	
김윤원 \$200	김윤원 \$200	고향미 \$20	이엘리자벳 \$20	고향미 \$20	유베로니카 \$20
장덕환 \$200	스텔라 \$150	김글라라 \$20	이사벨라 \$20	김글라라 \$20	이엘리자벳 \$20
지나 김 \$30	장덕환 \$200	김은희 \$20	이영란 \$20	김은희 \$20	이사벨라 \$20
케니 김 \$30	지나 김 \$20	김데레사 \$20	이정숙 \$20	김데레사 \$20	이영란 \$30
	케니 김 \$20	김헬렌 \$20	장지수 \$20	김춘자 \$40	이정숙 \$20
		김혜중 \$20	조용순 \$20	김헬렌 \$20	장지수 \$20
		미영로사 \$20	최정임 \$30	김혜중 \$20	조용순 \$30
		백수산나 \$20	허양욱 \$20	미영로사 \$20	최정임 \$30
		유베로니카 \$20		백수산나 \$20	허양욱 \$20
\$460	\$590	\$360		\$400	
▶ 특별기부 : 스텔라 \$500 북텍사스여성회 \$1,000		▶ 특별기부 : 마라아 앨러 \$50 글라라 \$20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해정(2)  
양일섭(2) 오병철(2) 오상만(2) 오상분(1)  
오성곤(2) 오용석(2) 이건수(2) 이금주(2)  
이동인(2) 이명옥(3)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1) 이민숙(2) 이삼선(2) 이상일(2)  
이상조(2) 이선미(2) 이성직(2) 이송균(2)  
이수경(2) 이상재(2)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종빈(한빛회, 2)  
이종태(2) 이지영(미아2) 이지원(2) 이진훈(2)  
이호성(2) 임경민(2) 임난숙(2) 임옥자(1)  
임정순(1) 장길성(2) 장수관(1)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전현민(2) 정규성(2)  
정미영(2) 정봉열(2) 정석환(2)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2)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1) 조재선(2) 조진영(2)  
조확기(2) 지형근(2) 천성현(2) 최강석(2)  
최명선(2) 최순희(2) 최준수(2) 최태도(2)  
최효순(2) 추정일(2) 태효원(2) 하정혜(2)  
한경미(1) 한성진(2) 한혜숙(2) 함정혜(2)  
함형덕(2) 허옥희(2) 홍판선(2) 홍대식(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1)

이상 10,000원

김병석(3) 현영돈(2) 이상 15,000원

(주)인스월드닷컴(1) 강만희(2) 강순화(2)  
강영철(2) 김민주(울산1) 김수현(2) 김승태(2)  
김영자(2) 김용신(2) 김인숙(2) 김준희(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창렬(2)  
박지웅/유정영(2) 백봉현(2) 백지웅(2)  
변상순(2) 서성민(2) 신광재(2) 신금옥(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옥연(1)  
양홍대(2) 오정연(2) 유광주(2) 이광범(1)  
이남숙(2) 이상규(2) 이서중(2) 이선용(2)  
이성재(2) 이정림(2) 이주형(2) 이화경(1)  
이희재(2) 임정순(1) 정석명(2) 조윤식(2)

이상 20,000원

## 〈한빛재단〉

문숙자(2) 1,000원  
김계순(덕양2), 김미란(2) 이상 2,000원  
강희춘(2) 3,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박안나(2)  
곽환상(2) 구자근(2) 김관중(2) 김대현(2)  
김동수(2)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2)  
김시홍(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항미(2) 김혜숙(목동2) 김혜정(2)  
나호연(2) 노수진(2) 류소연(2) 문혜원(1)  
박범진(2)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2) 배재수(2) 서동욱(2)  
설대호(2) 신성아(2) 신인아(2) 신혜경(2)  
엄민애(2) 오형균(2) 유경희(당산1)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희(2)  
이승영(1) 이승희(2) 이양훈(2) 이종수(2)  
이지영(1) 이행남(2) 이호열(2) 임정리(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명순(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한송이(1)  
한진숙(2) 현승혜(1) 홍영일(2) 홍혜경(2)

이상 5,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필규(1) 강희정(2)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구재순(1)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려원(2) 김민수(1)  
김범수(2) 김보경(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영지(2) 김옥남(2) 김완섭(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2)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자(2) 김인숙(부산2) 김자경(1)  
김재환(2) 김종용/전정원(3) 김준형(2)  
김진원(안산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배(2) 김형식(2)  
김화중(2) 나효진(2) 노현옥(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준(의정부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재(2) 박일현(2) 박종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전선희(2) 박대진(2) 박혜정(1)  
박희정(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춘숙/김신근(2) 서동범(2) 서동원(2)  
서미란(2) 서영란(2) 석지민(2) 석지은(2)  
석창록(1) 성경희(2) 송기영(2) 송정석(2)  
송유자(2) 신동혁(2) 신영길(2) 심우진(2)

강재철(2) 김계영(1) 김홍현(2) 민유숙(2)  
 민정범(2) 박용길(2) 신화용(2) 오청근(2)  
 윤경자(무악2) 이관희(2) 이상길(2) 이선희(2)  
 이용현(1) 이종빈(재단, 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3) 정병배(2)  
 홍규진/옥보경(1) 홍성관(2)

이상 30,000원

박종성(2) 35,000원  
 고명지(2) 서판임(2) 이상 40,000원

김은영(2) 김은주(2) 김의규/구자명(3)  
 김지웅(2) 김현수(2) 민택산업/남기백(3)  
 알티엑스포츠(2) 엄혜령(2) 오명희(2)  
 유시영(1) 이종우(2) 최해자(2)

이상 50,000원

이용현(1) 6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힐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구태연(2)  
 김윤희(2) 박지연(2) 안성환(2) 오선환(2)  
 어재형/신지영(2) 오정선(2) 이승수(2)  
 이영숙(1)

이상 100,000원

채진석(2) 150,000원

뉴라이프교회(명지춘혜)(2) 900,000원

특별후원금

국기호 1,000,000원  
 김옥순 100,000원 립정옥100,000원  
 변상순 200,000원 성원용 500,000원  
 서영호 200,000원(복지관)  
 고은주 2,000,000원(복지관)  
 임경애 100,000원  
 산업은행 무역금융실 3,000,000원  
 물품후원 국기호 감정평가사님(과일 4박스)

<휠체어날개달기>

전교수(2) 이상 3,000원  
 조성우(2) 이상 5,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2)  
 김동현/김승기(2) 김명석(2) 김서주(2)  
 김소하(2) 김순영(2) 김순이(2) 김영숙(2)  
 김용환A(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2) 김창복(2)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2)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미애(1) 박수경(2)  
 박신용(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2)  
 신승엽(2) 안경옥(12) 안종필(1)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유은수(2) 윤민정(2)

이가영(2) 이광호(2) 이상분(2) 이상희(2)  
 이승훈(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자영(2) 이장욱(2) 이재숙(2) 이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형재(2)  
 이해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해(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해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목(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옥희(2)  
 최유경(2) 최윤지(2) 최진숙(2) 추경은(2)  
 한정민(2) 한홍길(1) 한혜영(2) 홍경숙(2)  
 홍상문(2)

이상 10,000원

강윤희(2) 강인숙(2) 김경숙(3) 김덕길(2)  
 김일생(2) 김진형(2) 김철상/이공이(2)  
 김효생(2) 박정경(2) 박순신(6) 송경자(3)  
 오문영(2) 이상희(2) 이해숙(2)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3) 장혜연(2) 전승완(2)  
 정경호(2) 조민숙(1)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명숙(2) 최정희(2) 한광희(2)

이상 20,000원

(주)송지(2) 김옥수(2) 김옥주(2) 이태자(2)  
 최진경(2) 이상 30,000원

(주)서버존(2) 강옥순(2) 김혜명(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이상 50,000원

박형상(2) 100,000원  
 변천섭(1) 200,000원

특별후원금

김경미 200,000원 김현정 300,000원  
 박현성 100,000원  
 홍규진, 옥보경 30,000원

<한벗동지>

고현우(2) 공아영(2) 곽희수(1) 권명현(2)  
 기효순(2) 김가운(1) 김계자(2) 김남제(2)  
 김라온(1) 김민서(2) 김승빈(2) 김용락(2)  
 김윤희B(1) 길현(1) 류민경(2) 마은영(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2)  
 박창범(3)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윤희(2) 양인희(2) 여희숙(2) 오현숙(2)  
 우지영(2) 유순우(2) 이현주(2) 이혜란(2)  
 임경숙(2) 임정혜(2)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조상은(2) 조은미(1) 최은미(2)  
 한경희(2)

이상 5,000원

강순기(2) 강유승(2) 강인수(2) 강훈선(2)  
 강현(2) 고유미(2) 곽봉현(2) 곽병현/장형기(2)  
 구성모(2) 구혜림(2) 권오준(2) 권지연(2)  
 김기래(2) 김면봉(2) 김명순(2) 김명희(일산2)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보경(1)  
 김상수(2) 김석겸(2) 김선욱(2) 김선향(2)  
 김성길(2) 김세연(2) 김수혜(1) 김연주(2)  
 김영승(2) 김영진(2) 김예찬(2) 김우주(2)  
 김윤근(2) 김윤희A(1) 김인근(2) 김인순(2)  
 김인숙(2) 김성석(2) 김진옥(1) 김태연(2)  
 김하나(2) 김혜정(2) 김호영(2) 남성현(2)  
 남진숙(2) 노신규(2) 노영진(2) 류재남(2)  
 박리라(2) 박상현(2) 박성준(2) 박용우(2)  
 박일현(2) 박자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2) 박지원(1) 박해진(2) 변기정(2)  
 변아름(2) 서동연(2) 서민향(2) 서인숙(2)  
 서정민(상암)(2) 서희주(3) 성다혜(2)  
 소기자(2) 송옥진(2) 송은주(2) 송재하(2)  
 신동연(2) 안국희(2)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항자(2) 양현태(2) 여일구(2)  
 오광진(2) 오성진(2) 우기후(2) 우춘자(2)  
 원현선(2) 유민화(2) 유윤미(2) 유순현(2)  
 윤정애(2) 윤태훈(2) 이경진(2) 이상수A(2)  
 이상수B(1) 이소정(2) 이송순(2) 이영순(2)  
 이옥순(2) 이용식(2) 이은자(2) 이재호(2)  
 이종욱(2) 이지영(2) 이태환(2) 이희권(2)  
 이희숙(동지)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장순주(2)  
 장영숙(2) 장철만(2) 장현주(2) 전애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세원(1) 정영석(2)  
 정영진(2) 정완교(2) 정재영(2) 정진하(2)  
 정향남(2) 제갈윤(2)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2) 채영심(2) 천병수(2) 최경희(2)  
 최미정(2) 최선영(2) 최순우(2) 최은미(서초2)  
 추지훈(2) 하인석(2) 한지행(2) 황진숙(2)  
 현재준(1)

이상 10,000원

강신순(2) 강희정(2) 김경란(2) 김미진(2)  
 김성우(1) 김여은(2) 김정애(2) 김홍규(1)  
 김희량(2) 문정희(2) 박민희(2)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우영옥(2) 원석범(2)  
 유선민(2) 이병수(2) 이선우/김영희(2)  
 이정림(2) 이지영(강서2) 조기택(2) 조은이(1)  
 정현주(2) 지현정(2) 진권(2) 채순옥(2)  
 하복덕(2) 한재형(1) 한초덕(2) 한혜림(2)  
 함종수/한정옥(2) 황민규(2)

이상 20,000원

권미정(2)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범준(2) 김연숙(2) 김윤영(1) 박희수(2)  
 서민행(2) 성낙일(2) 오범균(2) 윤일심(2)  
 이수경(1) 이웅기(1) 이재용(2) 임재창(2)  
 임해숙(1) 조길용(1) 조병훈(2) 조은주(2)

정숙용(2) 정은영(2) 채한석(2) 최갑석(2)  
황정현(2)

이상 30,000원

백승열(2) 40,000원

곽형우(2) 권영수(2) 김간란(2) 김종호(2)  
김한서(1) 윤미선(2) 이태균(2) 조성윤(2)  
조항미(2) 홍영미(2)

이상 50,000원

박상봉(2) 열림교회(1) 유정자(2) 주지연(2)

이상 100,000원

김장옥(1) 150,000원

하대주(2) 최선미(마포소방서, 1)

이상 200,000원

서강어린이집(1) 465,000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1) 600,000원

가람엔지니어링주식회사-홍기탁(2)  
1,000,000원

〈한벗등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박현민(2) 5,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김진아(2) 안성윤(3)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최원우(1)  
홍원표(2)

이상 1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1)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이상 2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김선평(2) 이태희(2)

이상 30,000원

김혜원(2) 유경환(2) 이상 50,000원

최수진(2) 이상 70,000원

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1)  
이상 100,000원

〈주간보호센터〉

김운수(2) 조승현(2) 이상 5,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박채련(2) 양영춘(2) 윤준호(2)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차경옥(2) 한정환(박종미)(3)

이상 10,000원

김민정(2) 15,000원

김정훈(2) 김종범(3) 신호숙(2) 심진섭(2)  
엄해경/김근일(2) 이상 2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한정환(한가현)(2) 이상 30,000원

신현관(2) 장안태(2) 홍지웅(2)  
이상 50,000원

김현진(2) 100,000원

통권 제 294호  
발행일:2023년 3월 10일  
발행인:최명숙 제작:한벗재단  
주소: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TEL:(02)393-0661(대)  
MOBILE:010-6747-0661  
FAX:(02)712-6093  
이메일: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www.hanbeot.org

한벗재단 임원

법인이사:최명숙(이사장) 장우형(부이사장)  
김유원 김정희 김혜명 윤승모 채진석  
유형진 유시영  
법인감사:강만희 김훈  
운영위원회:백진양(회장) 권진동 김자희  
김현숙 엄해경 이경화

부서별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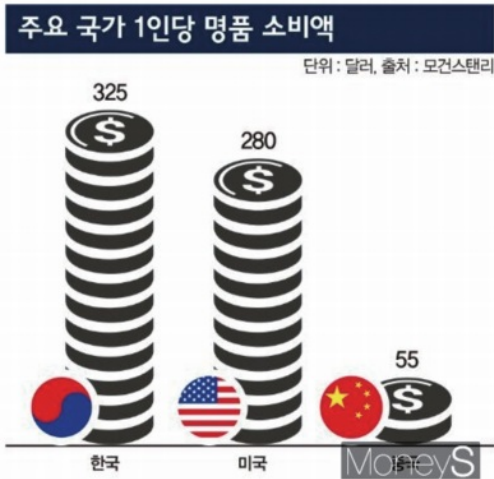
한벗동지:02)336-3100  
주간보호:02)713-5050  
휠체어기증본부:02)713-1005  
한벗투어:02)702-1515  
고양시 지축종합사회복지관:02)381-8938

22년 12 ~ 23년 1월 재정보고 (2개월 합산) (단위: 원)

수입		지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기부금	정기(재단)	12,796,000	인건비	급여/퇴직/보험	16,022,960	
	특별(재단)	8,690,000	시설지원	등지/주간/지축	9,376,200	
	미국교민후원	1,587,492	운영비	수용비/여비 등	5,299,500	
	등지/주간	7,060,000	업무비	직책보조비 등	1,208,920	
	날개달기기금	5,146,000	간행비	소식지제작/발송	959,760	
	방정환기금	1,846,200	공공요금	재산세 포함	3,814,410	
	미안마보육원지원	645,820	사업비	미안마센터운영	3,866,000	
임대수입	중계기 임대료	5,390,000		어린이잡지기증	3,222,200	
	원룸관리비	4,927,837		미안마방문	1,300,259	
외부기관	공모사업	10,000,000		조선족장애인지원	5,271,020	
보조금	유급휴가비	221,200		장애인피부비용	4,964,875	
기타	잡수입	436,750		게스트룸 시설	274,110	
				미안마 그네설치	625,000	
				기타 사업지원	1,500,000	
				상환금	원금/이자	6,350,236
				잡지출	862,500	
			합계	60,105,075		
총계	58,747,299	잔액		-1,357,776		

사 랫 세 상

# 세계 제일의 대~한민국! 명품 소비 마침내 세계 1위 달성



### 대한민국의 저력

한국은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남다른 저력을 발휘했다. 명품소비, 2019년 세계 8위에서 2020년 7위, 2021년 5위. 그러다 물가 상승으로 미국, 영국, 일본 판매가 줄어든 2022년, 마침내 1위를 탈환했다. 대단한 나라 아닌가?



### 1인당 명품소비액 41만원

1인당 41만원이라면 오해하기 쉽다. 온 국민이 명품을 사는 게 아니니까. 명품 구입자의 절반은 2030세대이다. 한 번에 평균 142만원을 쓴다. 이상하리론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면 명품 값도 오르

는데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더 잘 팔리는 현상이다. 지금 프랑스로 무슨 명품가방을 사기 위해 1,000만원을 미리 내고 기다리는 대기자가 1,000명이나 된단다.



### 작년 21조원어치 명품구입

21조원을 우습게보지 말라. 삼성전자 22년도 영업이익 43조의 절반이나 된다. 우습다면 자동차제조 세계3위의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680만대를 팔아 번 돈이겠지(17조원).

그래, '니들이 코피 나게 자동차를 만들면 뭐하니?'

### 명품이 주는 행복

명품을 왜 사느냐고?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니들과 다른 부류'가 되는 기분, 이런 게 행복이 되었다. 그런데 지 혼자 즐기 위해 1,000만원을 선물하고 줄까지 서야 한다고? 우리는 10만원이면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데...